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순조

### 문화재 보수·가로경관 정비 등 2025년까지 원도심 재생 추진

목포시가 원도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포 원도심은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의 관공서·주거·상업시설 등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다. 노동 운동, 소작 쟁의,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당시 민중의 저항이 펼쳐진 공간이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켜가 쌓여있어 '지붕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린다.

특히 3대항 6대도시로 번성했던 근대 목포를 엿볼 수 있는 격자형 도로를 비롯해 옛 목포일본영사관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옛 호남은행, 경동성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많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건축자산을 보수·정비해 역사성을 보존하는 한편 전시·체험·창업공간으로 활용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유달·만호동 일대의 가로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는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목포의 멋과 예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목



목포시가 원도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옛 일본영사관 앞 국도 1·2호선 기점. <목포시 제공>

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재탄생시켰다. 또 옛 일본영사관 앞 국도 1·2호선 기점공간을 정비하고, 민여거리 쉼터 등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해 도보 여행의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은 2023년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옛

대광전자 상가와 옛 아마하 선외기 창고 건물을 보수하는 한편 갑자옥 모자점-목포천막사 구간 전선지중화, 골목길 가로경관 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펼친다.

시는 원도심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삶의 현장이라

는 점도 중시하고 단순히 건물 입면·간판 등 외관을 수리하는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신청

무안군, 2월 28일까지

20~75세 연간 20만원

무안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194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생) 여성 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과 전업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2021년도 농어업 이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카드는 4월부터 농협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에서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명호 무안군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여성농어업인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년도 지급대상자의 자동신청이 불가하니 신청희망자는 빠짐없이 읍·면에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신안군 계약심사제도 운영 5년간 120억 아꼐다

신안군이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1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신안군 심사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

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597건 1363억원(공사 252건, 용역 87건, 물품 248건)의 심사를 통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절감액은 120억원에 이른다.

현재 계약심사 지속시행으로 표준품셈 적용이 표준화되고, 사업부서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등으로 계약심사 절감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 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군, 축산 악취 개선에 55억 투입

### 공모사업 2건 선정 등 총 6개 사업...축산환경개선 총력

영광군이 올해 6개 사업에 총 55억 원을 투입해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의 축산환경을 개선에 나선다.

영광 군내에서는 그 동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갖은 민원과 주민들 간 분쟁이 벌어져 왔다.

군은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한 축산악취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악취개선사업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그리고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이다.

특히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돈 농가에 농장별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을

지원하여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축산용 미생물제를 매월 공급하여 악취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가축의 장내 환경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과 축협, 축산환경관리원, 생산자단체, 사업 참여 농가, 지역주민 대표 등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산농가 악취개선 컨설팅, 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 조정 등 축산악취에 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며 "군에서는 악취 냄새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따뜻한 설 명절 되세요"



## 한빛원전, 영광군청에 생필품 전달

한빛원전력본부는 지난 16일 영광군청을 찾아 '희망가득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사진) 이번행사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참쌀(1kg)과 생필품(14개 품목)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 350세트(2800만원 상당)는 한빛원전 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여

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을 함께한 최원규 본부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어 마음이 훈훈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기탁받은 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 완도군,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 만 49세 이하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100쌍

완도군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 ▲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며,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축하금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해남군에 '빈 집' 716채

### 출입 제한·철거 필요 31호 등

해남군이 농촌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의 실태조사 결과 총 716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남군의 빈집은 비고적 상태가 양호한 일반빈집은 685호, 출입제한 및 철거 조치가 필요한 특정빈집은 31호로 조사됐다.

빈집이 많은 지역별 현황을 보면 화면면 107호, 산이면 71호, 황산면 59호, 화산면 54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역 주도의 자율적 빈집정비 유도를 통한 빈집 철거는 물론 빈집의 매입, 임차 활용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연차별 정비 및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미 추진 중인 빈집 철거사업, 청년 및 귀농 귀촌 빈집 리모델링, 작은학교살리기 빈집 수리 등 군에서 추진하는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의 매매, 임대 등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빈집정보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촌의 빈집 증가는 지역소멸의 직접적인 징후라는 점에서 빈집 소유자 및 관리자의 빈집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초등학교 입학·졸업생에 책가방 지원

신안군은 2023년 초등 예비 입학 및 졸업생 65명을 대상으로 책가방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가방 지원 사업은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중 23년 신학기에 앞서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을 준비하는 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였으며, 책가방 지원 사업은 연령별 선호도 높은 브랜드와 다양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보호자 및 아동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신안군 드림스타트는 관내 만 12세 이하 취

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서비스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전달되는 책가방이 대상 아동들에게 실례임과 기대감 가득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신안군의 모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이혁영(오른쪽) 씨월드고속훼리(주) 회장이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한 후 박홍률(가운데) 목포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 3000만원 기탁

씨월드고속훼리(주) 이혁영 회장이 17일 목포시청을 찾아 사랑의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혁영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늘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코로나19를 딛고 일어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끊임없는 봉사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포시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발전 기금을 비롯하여 사랑의 물품 전달과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등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을 초청한 특별한 여행 '사랑실은 제주도 드림투어'를 마련해 감동을 주기도 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